



광주FC, 전반기 마지막서 첫 승 기억 되살린다

K리그1 2026 2라운드 경기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광주FC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내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서 인천과 맞대결 시즌 유일 승리 상대·월드컵 휴식기 전 반등 요소 주목

프로축구 광주FC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올 시즌 첫 승의 기억을 되살린다. 광주는 16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1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앞서 광주는 지난 12일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0-1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그 결과 성적은 1승 4무 9패 승점 7로 리그 12위에 머물렀다. 오랜 기간 패배가 지속되면서 12개 구단 중 유일하게 한자릿수 승점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강등권 탈출도 쉽지 않다. 광주는 10위 김천상무 FC, 11위 부천FC1995(이상 승점 14점)과도 7점 차다. 이번 인천전에서도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다면 리그 종료까지 순위를 뒤집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번 인천전은 올 시즌 K리그1 전반기 마지막 경기다. 15라운드를 끝으로 K리그1은 북중미 월드컵 일정에 맞춰 약 한 달 반 동안 휴식기에 들어간다. 리그는 오는 7월 4일 재개될 예정이다. 흥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도 16일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

후 미국 현지 캠프에 돌입한다. 긴 휴식기를 앞둔 만큼 광주 역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흐름은 희망적이다. 연패 기간 대량 실점을 쏟아내던 양상과는 다르게 최근 2경기에서는 단 1실점만을 허용했다. 서울전에서는 선두팀을 상대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이전보다 단단해진 경기력을 보여줬다. 강원FC전부터 이어진 수비 조직력 회복도 긍정적인 대목으로 꼽힌다. 반면 공격력은 여전히 속쇄다. 광주는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다. 올 시즌 전례로 넓혀봐도 14경기에서 7득점에 머무르며 리그 최저 득점에 빠졌다. 슈팅(108개)과 유효슈팅(36개) 역시 리그 최하

위다. 공격 전개 과정은 나쁘지 않지만 결정적인 마무리가 어렵다. 해결사의 부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광주는 올 시즌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 패배가 없다. 안정감을 되찾은 수비를 바탕으로 초반 흐름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인천과의 첫 맞대결에서도 먼저 골문을 열며 3-2 승리를 거뒀고, 이는 광주의 시즌 첫 승으로 이어졌다. 인천은 현재까지 광주가 유일하게 승리를 따낸 팀이다. 여기에 인천 공격의 핵심 무고사가 부상 여파로 결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도 광주에는 호재다. 다만 제르스와 페리어를 앞세운 인천의 빠른 공격 전개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광주 역시 최근 인천 원정 5경기에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어 부담

이 적지 않다. 광주에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인천전을 마친 뒤 약 한 달 반 동안 월드컵 휴식기에 돌입한다. 이후 재제가 풀리는 여름시장이 열리는 만큼 전력 보강과 함께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휴식기 전 최대한 승점을 확보해야 후반기 반등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선수단 역시 반드시 전반기를 승리로 마무리해 분위기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부담 없는 일정 속에서 총력전을 준비하며 강한 투지를 다지는 중이다. 광주는 최근 살아난 수비 집중력을 앞세워 인천 공략에 나선다. 첫 승의 기억이 있는 인천을 상대로 다시 한번 웃으며 전반기를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여자 1500m T20(중) 경기에서 입상에 성공한 전남 육상 선수단. 사진제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



여자 200m T20 고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가은(왼쪽 두 번째). 사진제공=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전남 장애인 육상, 여자 1500m T20 금·은·동 석권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남 국사람·강유림·김상은, 중등부 수상
광주 수영 김하진·육상 이가은 200m 우승

전남 장애인 육상 선수단이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3일차 여자 1500m T20(중) 경기에서 금·은·동을 모두 휩쓸었다. 국사람(소림학교 중 1년)은 14일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1500m T20(중) 경기에서 6분41초24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강유림(덕수학교 중 2년)이 7분3초76으로 2위, 김상은(순천선혜학교 중 3년)이 7분25초01로 3위에 올랐다. 이로써 전남 선수단은 이 종목에서 1~3위를 모두 휩쓰는 최고의 기량을 펼쳤다. 앞서 여자 800m T20(중), 여자 100m×4R T20(중)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국사람은 이번 메달로 대회 3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황다연(함평영화학교 고 3년)은 같은 종목 고등부 경기에서 6분16초79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 800m T20(고), 여자 100m×4R T20(고)에서도 정상에 올랐던 황다연 역시 이번 금메달로 3관왕을 차지했다. 여자 200m T11(중)에서는 노연희·이지아(이상 은광학교 중 3년)가 42초320의 기록을 합작하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또 노영훈·김낙원(이상 은광학교 중 3년)은 남자 200m T11(중)에서 40초270으로, 김도현·문여준(이상 은광학교 고 1년)은 남자 200m T11(고)에서 34초100으로 각각 금메달을 따냈다. 여기에 윤하민(은광학교 고 1년)이 남자 200m T13(고)에서 30초13으로, 조경인(목포인성학교 중 3년)은 남자 멀리뛰기 T20(중)에서 4m96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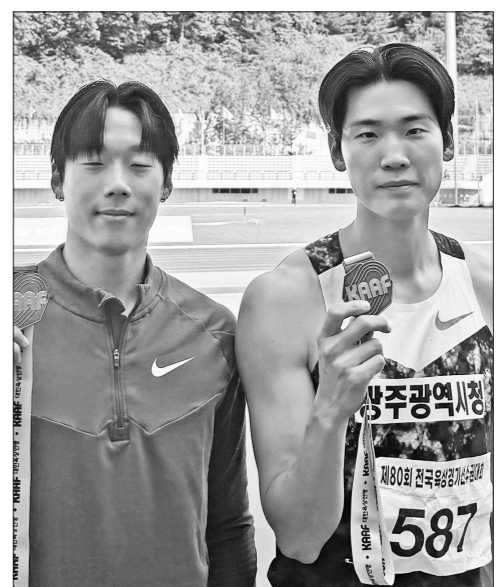
각각 정상에 올랐다. 광주 선수단 역시 맹활약을 펼쳤다. 수영 김하진(광산중 3년)은 대회 첫날 100m 금메달에 이어, 여자 자유형 200m S14 중등부에서 3분00초8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전지민(우산중 2년)은 여자 평영 50m S14 중등부에서 49초50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자유형 200m S14 고등부 정재호(광주선광학교 고 1년)는 2분 20초 87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육상에서도 대량의 메달이 터졌다. 트랙 부문 이가은(광주선명학교 고 3년)이 여자 200m T20 고등부에서 31초74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작년 대회 여자 T20(고) 200m와 400m 금메달로 2관왕을 차지했던 이가은은 15일 400m에서 2년 연속 2관왕에 도전한다. 남자 멀리뛰기 T20 초등부에서는 임성민(금호초 6년)이 3.07m를 뛰어 은메달, 정경은(계수초 5년)은 2.97m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200m B T12 고등부에서는 신현성(광주세광학교 고 3년)이 30초95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기에 여자 200m T13 고등부 권나림(광주세광학교 고 2년)이 49초12로 은메달, 남자 200m T13 중등부 용상엽(광주세광학교 중 3년)이 45초 03으로 은메달, 여자 멀리뛰기 T20 초등부 고은별(삼무초 6년)이 2.81m로 은메달을 수확했다. 필드 부문에서는 강동우(광주세광학교 중 1년)가 남자 원반던지기 F13 중등부에서 8.93m로 은메달, 포환던지기에서 4.82m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남자 포환던지기 F20 고등부에서는 강민호(광주선명학교 고 2년)가 8.52m로 동메달, 여자 포환던지기 F20 고등부에서는 서예진(광주선명학교 고 3년)이 6.06m로 동메달을 건졌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광주 선수단은 금 9·은 17·동 16개, 전남 선수단은 금 21·은 19·동 27개를 기록 중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청 육상팀 이재성, AG 선발전 200m '우승'

전국육상선수권 남자부 결승서 20초64로 '1위'
고승환, 20초92 '동'...정안성, 400m허들 은메달

광주시청 육상팀 이재성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안게임 남자부 200m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재성은 14일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8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200m 결승에서 20초64를 기록,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서민준(서천군청)은 20초 91로 2위, 고승환(광주시청)은 20초92로 3위에 올랐다. 전남 준결승을 20초65로 통과했던 이재성은 결승에서도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이재성은 이를 전 열린 남자 100m에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200m 우승까지 더하면서 개인종목 출전권도 확보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아안게임에서 100m와 400m

계주에 출전했던 이재성은 이번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는 200m와 계주 무대에 나서게 됐다. 준결승에서 20초50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던 나리디 조엘린(예천군청)은 결승에서 기권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이재성이 아시아안게임 개인종목 출전권을 따내는 성과를 냈다. 개인 최고기록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훈련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아시아안게임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청은 허들 종목에서도 메달을 추가했다. 전남 열린 남자 400m 허들 결승에서 정안성은 51초06을 기록하며 김주호(대구시청·50초56)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예선을 52초07로 통과한 정안성은 결승 초반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주도했으나, 피니시라인을 앞두고 김주호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2위로



'제8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재성(왼쪽)과 동메달을 획득한 고승환. 사진제공=광주시청 육상팀

경기를 마쳤다. 조상현(목포시청)은 51초15로 3위를 차지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국 당구인 광주서 격돌... '박종규 회장배 3쿠션 대회' 성료

국내 최대 규모 아마추어 대회
김명일 우승·이성의 준우승

광주시당구연맹이 주최한 '박종규 회장배 전국 3쿠션 당구대회'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광주 광산구 흑석동 국제당구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연맹 임원진과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선수단 1200여명, 진행요원 및 내외빈 등을 포함해 총 1400여명이 함께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행사에는 정준호 국회의원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도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회 우승은 김명일이 차지했다. 김명일은 결승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2000만원을 거머쥐었다. 준우승은 이성의가 기록하며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공동 3위에는 조원우 선수와 김우현 선수가 올라 각각 23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광주시당구연맹이 주최한 '박종규 회장배 전국 3쿠션 당구대회'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광주 광산구 흑석동 국제당구장에서 열렸다. 사진제공=광주시당구연맹

이번 대회 총상금은 4000만원 규모로 국내 아마추어 3쿠션 당구대회 가운데 최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는 박종규 광주시당구연맹 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박 회장 취임 이후 광주에서는 세계대회 유치와 학교 연계 당구부 창설, 전국 규모 아마추어 대회 개최, 광주

시 대표 선수단 해외 전지훈련 지원 등 지역 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박종규 회장은 "우수 선수 발굴과 당구인 지원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상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세계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광주에서 세계 3쿠션 당구대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